

```
yaml
---
title: "Dayton 소방서의 페이네 총감이 논의한 사항"
---

Dayton 소방서의 페이네 총감은 그의 인원 복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논의했다. 그는 가정적 암 법안의 진척 상황을 지지하고 모니터링하며, 이 주제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그가 현재 진행 중인 암 예방 조치로는 모든 소방관에게 두 세트의 출동 장비를 구입하고, 새로운 세탁기/추출기를 구입하여 장비를 청소하며, 재정비 작업 중 SCBA(자기 부양 호흡 장비)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된다. 그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건강/웰빙 및 그의 소방서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유일한 총감이었다. 페이네 총감은 또한 고등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으로, 최근에 해군 사후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.

Columbus 소방부는 오하이오 주에서 가장 큰 소방서로, 30개의 소방서에 약 1,500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. 오'코너 총감은 그의 2억 3,000만 달러의 예산에 대해 논의하며, 금전적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. 그는 지속적으로 재정적 책임을 다하는 데 도전을 밟고 있으며, 예산의 93%가 인력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예산 식감이 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. 그는 필요에 따라 요청하고, 그 요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. 그는 데이터, 그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, "악랄한 문제"라고 이전에 지적된 사항을 언급했다. 그는 단위/인력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 보고서에 의존한다고 말했는데, 이 접근 방식이 흥미로웠다. 만약 활용 수치가 낮다면, 인력 수준은 부서의 표준 응답 시간 기준(4분)에 의해 지원된다. 그는 "소방서 총감으로서 나를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"는 점을 강조하며, 이는 항상
```

```
### 주천 사항

이 수업을 즐겼으며, 다양한 규모의 부서의 총감들과의 대화가 제공하는 전망을 보았다. 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,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. 총감들과의 일대일 회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. 한 가지 우려는 여행이었다. 개인적으로 나는 여행에 반대하지 않았지만, 이 수업 동안 520마일을 운전했다. 하지만, 나는 여행 요구 사항을 과정 설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. 이 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.
```